

대전역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소비하나?

- 대전 방문 외지인의 소비이동 -

이동통신 데이터(LGU+)와 매출데이터(삼성카드)를 가명결합²⁾하여 대전역에서 출발한 대전 방문 외지인의 소비이동을 분석³⁾했다. 공간적 범위는 대전광역시 전역(5개 자치구 및 82개 행정동)이며, 시간적 범위⁴⁾는 2024년 9월, 2025년 1월, 2025년 5월, 2025년 8월 총 4개월이다. 분석 대상은 4개월 동안 대전역에서 출발한 외지인 6,842명의 첫 결제지 결제 건수(5,080건)와 두 번째 결제지 결제 건수(1,197건)의 총합이며, 음식, 여가·오락, 공연·전시, 소매·유통, 의료·건강 업종에서 결제한 고객이다. ‘음식 업종’이란 대중음식점뿐 아니라, 성심당을 비롯한 빵집, 카페, 주점 등이 포함되며, ‘여가·오락 업종’은 숙박시설, PC방, 노래방, 스포츠시설 등을 포함한다.

주 1) 대전역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대전역이 첫 체류지이거나 순서상 세 번째 이내에 체류지로 대전역이 있는 외지인들로 봄

주 2) 본 분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5년 가명정보활용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됨

주 3) 본 분석 결과는 특정 표본의 소비행태를 분석한 것으로 전체 대전 방문 외지인의 특성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주위가 필요함

주 4) 한국관광데이터랩 이동통신 데이터 기반 대전 외지인 방문자 수 및 LGU+ 대전 방문 외지인 수를 활용해 분석 시점인 2025년 8월 기준 최근 1년 내 계절별 외지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월을 선정함

삼성카드는 업계 2위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⁵⁾하고 있으며, LGU+는 2025년 8월 기준 휴대폰 점유율이 약 19.5%(약 1,120만 회선)으로 업계 3위를 기록⁶⁾하고 있으나, 본 분석에 필요한 업종분류체계 형태로 데이터 가공이 가능하기에 선택했다.

본 분석은 대전역에서 시작된 외지인의 소비 행태를 시간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출발지 및 첫 번째, 두 번째 결제 지점을 연계하여 시공간적 이동 장소를 파악하고, 대전역을 기점으로 발생하는 공간적 확산 범위 식별 및 결제 건수 상위 행정동의 소비 활동을 살펴봤다. 결제 건수 10건 이하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1차 결제지]

27.9%
종양동

패스트 푸드(59.6%)
커피전문점(7.3%)
일반한식/백반(6.9%)

18.1%
은행선화동

제과점(59.0%)
커피전문점(9.3%)
편의점(5.3%)

6.6%
대흥동

커피전문점(17.6%)
일반한식/백반(15.8%)
편의점(11.3%)

4.5%
둔산2동

편의점(19.5%)
커피전문점(11.7%)
할인점(6.9%)

3.1%
온천1동

편의점(29.3%)
커피전문점(7.0%)
캐주얼(의류)(6.7%)

[2차 결제지]

종양동
(54.9%)

패스트푸드(44.9%)
커피전문점(12.9%)
일반한식/백반(8.9%)

은행선화동
(15.6%)

제과점(45.3%)
커피전문점(17.2%)
사무용품, 편의점(4.7%)

대흥동
(4.9%)

커피전문점(20.0%)
편의점, 갈비/삼겹살(15.0%)
모텔/여관(10.0%)

은행선화동
(65.9%)

제과점(48.7%)
커피전문점(12.4%)
일반한식/백반(5.6%)

종양동
(11.0%)

패스트푸드(47.1%)
일반한식/백반(13.7%)
와플/파이/디저트,
커피전문점(5.9%)

대흥동
(10.1%)

커피전문점(19.1%)
일반의류(17.0%)
편의점, 일반한식/백반(10.6%)

대흥동
(50.9%)

일반한식/백반(17.3%)
커피전문점(12.3%)
편의점(11.1%)

은행선화동
(30.8%)

제과점(53.1%)
편의점 인터넷PC방,
커피전문점, 일반한식/백반
(6.1%)
기타여가오락(4.1%)

둔산2동
(66.7%)

편의점(22.1%)
커피전문점(13.2%)
약국(7.4%)

종양동
(10.8%)

패스트푸드(81.8%)
후라이드/양념치킨,
일반한식/백반(19.1%)

온천1동
(79.0%)

편의점(36.7%)
캐주얼(의류)(14.3%)
일반한식/백반(8.2%)

첫 결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은 종양동

대전역에서 출발한 외지인 6,842명은 첫 결제지에서 총 5,080건을 결제했으며, 그중 종양동(1,416건, 27.9%)에서 가장 많이 소비했다. 다음으로 은행선화동(922건, 18.1%), 대흥동(335건, 6.6%), 둔산2동(231건, 4.5%), 온천1동(157건, 3.1%) 순이다. 첫 결제로 52.6%가 종양동, 은행선화동, 대흥동에서 이루어진다. 첫 결제가 이루어진 상위 5개 지역의 총 결제 건수 3,061건 중 2,352건(76.8%)이 ‘음식’ 업종의 결제로 대전역에서 출발한 외지인들은 첫 결제로 음식 소비가 많다.

원도심권(종양동·은행선화동·대흥동) 내 연쇄적 소비 집중

첫 결제지 상위 5개 지역 모두 첫 결제지와 두 번째 결제지가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첫 결제를 원도심권에서 한 외지인들은 82.4%(1,033건 중 851건)가 다시 원도심권 내에서 소비를 이어가며, 그중 73.7%(851건 중 627건)가 ‘음식’ 업종의 소비다.

종양동과 은행선화동은 두 번째 결제지로 많이 선택됐는데, 종양동의 경우 상위 소비 업종이 패스트푸드와 커피전문점인 것으로 보아 기차 대기 및 도착 전후의 틈새 소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은행선화동의 경우 상위 소비 업종이 제과점인 것으로 보아 성심당의 결제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 성심당의 매출 집계 방식⁵⁾에 따라 성심당 대전역점(종양동)은 성심당 본점(은행선화동)의 매출로 집계되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주 5) 매출 데이터는 사업자별 매출 집계 방식에 따라 실제 결제 지역과 데이터상 결제 지역 간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음. 실제 결제 지역이 아닌 가맹점의 사업자 등록지 주소로 기준으로 매출이 집계되는 경우, 실제 결제 지역과 데이터상 결제 지역 간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음

▶ 자료: 2025년 가명정보활용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생성된 LGU+ 및 삼성카드 가명결합 데이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2025년 9월 기준), 핀포인트뉴스(2025.6.23.), 삼성카드, 수익성 이어 점유율도 신한카드 추격... 업계 1위 굳히기 본격화
▶ 참고: 주혜진·류형원(2025), 「대전엔 성심당만 있다: 이동통신과 신용카드 빅데이터로 본 대전 방문 외지인의 소비」